理事에 걸림 없는 이 시대 모범 · 만세의 귀감

금성당 명선 대종사 다비식 엄수돼

2월 6일 화엄사서 영결 · 다비식
원로회의장으로, 2000여 명 참석
종정 성파 · 진우 스님 등 대독 조사
달라이라마 오랜 인연, 조사 보내와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선 대종사 원로의회장 장의위원회는 2월 6일 화엄사에서 '금성당 명선 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을 봉행했다.

호남지역 불교 포교에 평생 정진했던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다.

금성당 명선 대종사 원로의회장 장의위원회(위원장 대원 스님)는 2월 6일 화엄사에서 '금성당 명선 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명종을 시작으로 영결법요(우인 스님), 헌다, 헌향, 행장소개(종일 스님), 추도입정, 영결사(대독 대원 스님), 법어(대독 일면 스님), 추도사(대독 혜일 스님), 조사(종회의장 대독 만당 스님, 밀운 스님, 달라이라마 대독 진옥 스님, 김영록 전남도지사 대독, 신도회장 장길선)에 이어 조가(정율 스님, 연합합창단), 헌화(종단 및 각 대표), 인사말(문도대표 종국 스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원로회의 대원 스님, 암도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과 명예 원로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종회의원 덕현, 종보, 만당, 우봉, 정범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문도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명선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법어 대독을 통해 "가랑비 간밤에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피니, 골짜기엔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라는 법어를 내리고, "수행과 중생 교제(衆生交濟)에 힘쓰시다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 원적(圓寂)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열반락(涅槃樂)을 누리시고 속환사바 보리군생(速還娑婆 普利群生)하소서"라고 애도했다.

이어 원로회의 의장 학산 스님은 영결사 대독을 통해 "화엄사 본사를 내 몸처럼 아껴 큰 불사를 하여 확장하셨고, 나아가 종단 불사의 어려운 일에 몸과 뼈를 깎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나가 종단 발전에 헌신하셨다"고 추억하며, "사부대중은 못내 아쉬워 슬픔의 눈물이 하늘에 흘러 넘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 대독을 통해 "대종사께서는 의승수군유물전시관 건립으로 호국불교의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남기셨다"며 "늘 수행과 교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리셨고, 지역불교와 중앙불교의 양 날개를 함께 펴셨으니 이사(理事)에 걸림이 없는 이 시대의 모범이요 만세의 귀감이다"라고 대종사의 가장 큰 생전 업적을 찬양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대독을 통해 "이제 저희들은 대종사님이 일평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 나아가고자 하며 공부와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조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명선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날 진옥 스님 대독을 통해 보낸 조사에서 "오늘 오전 명선 큰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0여 년 전 다람살라를 방문하셨을 때 가까이에서 뵙고 종교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눈 것을 매우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한국 불자들과 스님을 의지했던 신도들과 더불어 영적 선배이자 도반인 명선 큰스님 입적 소식에 깊은 조의를 거듭 표합니다"라고 서신을 보냈다.

영결식에 이어 명선 대종사 법구는 스님과 신도들의 만장과 함께 화엄사 전통 다비장인 연화대로 이운이 됐다.

일주문과 부도전을 지나 이운된 법구는 연화대에 마련된 다비장에 안치되었고, 대중들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호위했다. 이어 스님들의 거화와 다비를 통해 이생과의 인연을 다했다.

명선 스님은 1952년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보관사, 범어사, 통도사, 도리사, 해인사 백련암, 상운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0년부터 제3~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고, 화엄사 주지, 2012년 원로회의 부의장과 여수 흥국사 주지,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2일 영수 흥국사에서 법랍 70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선운사 주지 후보 경우 스님 3선 연임

단독 출마…산중총회서 당선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경우 스님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조계종 제2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일묵)는 2월 1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현 주지 경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뒤 2월 13일 오후 1시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산중총회를 통해 당선이 확정됐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에서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만일사 주지, 장경사 주지, 총무원 사서국장 · 호법국장 · 감사국장 · 사서실장을 거쳐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선운사 주지를 지내왔으며 이번에 3번째 연임을 하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사암聯,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법회

2월 5일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
쌀 700포 울산시 · 남구청에 전달
삼호동청년회 · 체육회 공동주관
태화강 장어치어 3500마리 방생



조계종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산옹)는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들의 액운을 떨쳐내고 행복을 기원하는 한편 주민화합을 위한 합동방생법회와 달집태우기 월영기원제를 봉행했다.<사진>

2월 5일 울산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방생의식에 이어 2부 월영기원제, 달집태우기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울산불교사암연합회와 울산 삼호동청년회(회장 이상일), 삼호동체육회(회장 홍성민)가 공동주최 ·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후원했다.

그동안 조계종울산불교사암연합회가 경주 감포에서 봉행해오던 연합방생법회를 울산 남구 삼호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태화강에서 달집태우기행사와 연계해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지역의 스님들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방생법회는 육법공양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연합회 회장스님 인사, 축사, 음성공양, 상단법요, 발원문낭독, 방생의식, 방생의 순으로 진행됐다.

산옹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울산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에서 방생법회와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울산 남구청과 삼호동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생명존중 사상은 방생이라는 방편을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보름달이 둥글고 밝아도 내 마음이 어둡다면 빛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보름달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원"한다며 "오늘의 축원은 '천재설소만보운응'이라 천 가지 재앙이 모두 소멸되고 만 가지 법은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울산불교사암연합회, 백양사, 월봉사, 한마음선원합창단 4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은 자비 방생의 노래, 일천강에 비추는 달의 축가가 이어졌고 상단법요에 이어 발원문 낭독, 방생의식, 방생이 진행됐다.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울산 태화강 생태계와 환경에 맞고 자연친화적이고 생환 확률이 높아 추천된 장어 치어 3500마리를 방생했다.

2부 달집태우기 행사에 앞서 조계종 울산불교사암연합회는 울산 남구청에 백미 10kg 500포, 울산시청에 200포를 전달했다. 2부 행사를 주관한 홍성민 삼호동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참석해준 사부대중에 감사드린다. 지역과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식까지 더해 큰 복덕을 누린 듯하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달집과 함께 액운들을 태워버리시고 새해에는 소원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소망지 쓰기, 어묵 · 떡 · 차 등의 부스가 마련됐으며 태화강변에서는 삼호동체육회와 청년회가 주관하는 연날리기, 강강술래, 풍물패공연, 윷놀이, 제기차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가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3년 만에 재개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불교와 민속신앙이 어우러져 전승되어 온 민속문화이자 마을공동체 의식인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가 3년 만에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회장 박병우)는 2월 4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 수령 1000년 추정)과 일주문 앞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 수령 700년 추정)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내소사 주변의 입암마을 등 5개 마을 주민 등 불자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당산제는 불교식의 시식의식과 유교식 재례의식으로 내소사 주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지역발전을 발원했다.

각종 번과 만장을 앞세우고 풍물패의 가락에 맞춰 마을을 출발해 내소사 당산나무에 도착한 주민들은 내소사 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에 따른 시식의식으로 내소사와 내소사 사부대중,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일주문 앞 당산나무로 이동한 스님과 마을 주민들은 스님들의 축원과 독경에 이어 유교식 재례의식으로 당산제를 진행했다. 재례를 마친 마을 주민들은 민속놀이 등으로 대동한마당을 펼쳤다. 진성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유산"이라며 "사찰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사찰 자비의 쌀 나눔 이어



광주 연화사 등 광주지역 사찰들이 입춘과 정월기도 회향을 맞아 자비의 쌀 나눔을 이어갔다.

연화사(주지 명신)는 1월 30일 사찰에서 마련한 자비의 쌀 2600kg을 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하고,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는 2월 1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백미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백미는 지역의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된다.

동원사는 2월 4일 대웅전에서 쌀 2600kg을 (사)빛고을나눔나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맑고향기롭게, 생명나눔실천광주본부 등에게 각각 전달했다.

자운사(주지 일국)는 2월 8일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인 (사)빛고을나눔나무에 백미 100kg을 전달했다.

20여 년 전부터 매년 광주지역 사찰들은 정월과 입춘기도에 맞추어 신도들이 시주한 쌀을 지역 불교단체와 복지시설, 지자체에 후원해왔다. 이 외에도 신광사, 문빈정사, 증심사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해제 · 신년하례법회 봉행

2월 5일 사부대중 300여 명 동참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가 계묘년 동안거 해제법회와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2월 5일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열린 동안거 해제법회 및 신년하례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중앙종회의원 각진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동안거 해제법문을 통해 "우리는 깊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것을 타파했을 때에 깨달음을 얻는 바로 해탈의 길을 간다. 출가 후 금오 노스님으로부터 시심마 화두를 받았으나 번뇌 망상에 시달렸다"며 "그 후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으로 부터 무자 화두를 받고 생활 속에서 위에 걸려 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무자 화두로 들면서 다 내려놓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 법문했다.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모든 금산사 사부대중은 더욱더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또 금산사 본 · 말사, 또 다니시는 원찰 모두 함께 가람을 수호하고 포교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큰 원력을 가지신 도영 큰스님께서 금산사 조실에 추대되신 것을 우리 17교구 대중 모두 경하드리고 사부대중 모두 큰스님을 모시고 교구를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원 스님은 "지난 해 문중회의에서 도영 스님을 금산사 조실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산사에서 추대법회를 열어 여법하게 조실로 모실 예정이다"며 "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금산사와 본 · 말사,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스님께서 더욱 건강을 잘 챙겨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불자 대표들은 동안거 기간 동안 정진한 대중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정각사 정월 대보름맞이 법회

달집 태우며 새해소망 기원
어려운 이웃에 라면 100박스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조계종 16교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초청해 '행복한 이야기' 주제로 초정법회를 봉행했다.

2월 5일 정각사 극락전에서 봉행된 초청법회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익산신도연합회 송주용 회장, 오창록 익산포교사회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전국회의원, 지역주민들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재 마한거사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 익산까지 와주신 등운 스님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덕산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신행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액운을 떨쳐내고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월초하루는 가족단위의 명절이라면 대보름은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명절"이라며 "훌륭하신 스님의 법문을 통해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중생은 행복과 행복의 인연을 짓고 고통의 인연을 짓지 않는다. 모든 중생은 고통 없는 행복과 멀어지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내어준다"며 "복을 짓는 방법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복을 짓는 대상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회 후 대중은 달집태우기 행사장으로 이동해 소원지를 태우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2월 2일 오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기탁된 라면은 오산면 관내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칠곡 동명사,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



칠곡 약목면 소재 동명사의 주지 법운 스님(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을 비롯한 종도 스님들이 2월 7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롤 휴지 200박스, 250만 원 상당의 사랑의 후원 물품을 이재혁 약목면장에게 기탁했다.

동명사 주지 법운 스님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혁 약목면장은 "법운 스님과 종도 스님들께서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동명사에서는 매년 후원 물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